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 pp.15-3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7. 30.

평화교육을 위한 종교의 과제

- 가톨릭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염두에 두고* -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요 약〉

현대는 다문화와 다종교의 시대이다. 복잡다단한 시대 조류 속에서 종교가 지닌 평화실현을 위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교육의 기능을 찾아보는 일은 중대하고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교가 지니는 적극적이고 참된 평화의 실현이라는 교육적인 역할을 탐구하고자 하는 요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현대 종교의 현실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종교의 교육적 역할을 가늠해 본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하느님의 평화, 즉 ‘샬롬’이라고 지칭 되는 완전한 형태의 적극적인 평화를 그 이상으로 이야기 해 오고 있다. 그리스도교, 그 중에서도 가톨릭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평화에 초점을 맞춘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김수환추기경연구소가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시행해 오고 있는 교육 내용 중에서 김수환추기경의 평화 이해와 평화실천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화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룬다.

핵심주제어: 평화교육, 평화감행,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샬롬, 적극적 평화, 김수환추기경, 김수환추기경연구소

* 본 연구는 2015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2015년 5월 15일에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 개최된 한국종교교육학회 20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고 토론을 거쳐 보완하였으며, 익명의 심사자 3인의 심사평 및 수정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재 수정하였음.

I. 서론

현대는 다문화와 다종교의 시대이다. 소위 “종교백화점 혹은 종교의 슈퍼마켓”에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제각기 마음에 드는 품목(items)을 선택해서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이다.¹⁾ 한 편으로 자유 의식이 그 어느 때에 건줄 수 없을 만큼 고취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는 대중 조작에 따른 우민화를 염려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종교를 빙자한 테러가 난무하는 세계적 모순이 증대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대인이다.²⁾ 이렇게 복잡다단한 시대 조류 속에서 종교가 지닌 평화실현을 위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교육의 기능을 찾아보는 일은 중대하고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³⁾

우리가 처한 세계는 동서 냉전으로 대표되는 상극의 시대를 지나, 이제 다중심(multi-centrism), 다문화, 다종교를 내세우는 상호협력과 호혜적 대화를 갈망하는 상생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다. 인종적, 지역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종교인구의 비율 분포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발적인 종교인구의 증가 등은 현대 종교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하게 만든다.⁴⁾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교가 지니는 또는 지녀야만 하는 “적극적이고 참된 평화”⁵⁾의 실현이라는 교육적인 역할을 탐구하고자 하는 요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다문화 속 다종교를 전제로 하는 현대 종교의 현실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종교의 교육적 역할을 가늠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자신에 대한 배타적 보호 방책이나 제한적 울타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세상과 인간을 더 잘 그리고 더 깊이 알아듣는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종교학과 신학의 새로운 조류, 즉 ‘응용종교학’ 내지는 ‘종교신학’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일가 있다.⁶⁾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하느님의 평화, 즉 샬롬(shalom)이라고 지칭 되는 완

1) Peter L. Berger, 김쾌상 역, 『현대사회와 신』, 대한기독교서회, 1979 참조.

2) 김정재, 「위기극복의 과제와 종교의 역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명충돌 위기와 종교. 2001 하반기 이웃종교 이해강좌 자료집』, 서울: 종로성당, 2001년 12월 4일, 7-11쪽 참조.

3) 현대 평화 이론에 관한 내용은 김명희, 「종교, 폭력, 평화: 현대 평화연구에서 종교의 위치」, 『종교문화비평』18, 2010 참조.

4) William A. McGeveran,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New York: World Almanac Book, 2005; <http://www.globalreligiousfutures.org/> [2015. 4. 30. 최종접속] 참조.

5) 정친구, 「평화의 두 가지 개념에 관한 논쟁: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서석사회과학논총』 4, 2011 참조.

6) Wilfred Cantwell Smith, *Towards a World 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pp. 21-44; Leonard Swidler, ed., *Toward a Universal Theology of Relig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7, pp. 1-50; 유정원, 「한스 쾰링의 평화신학」, 이찬수/유정원, 『종교신학의 이해』, 신학총서 32, 분도출판사, 1996, 195-204쪽 참조.

전한 형태의 적극적인 평화를 그 이상으로 이야기 해 오고 있다.⁷⁾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교, 그 중에서도 가톨릭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평화에 초점을 맞춘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김수환추기경연구소가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시행해 오고 있는 교육활동의 내용 중에서 김수환추기경의 평화 이해와 평화실천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화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룬다.

II. 평화 교육⁸⁾

세계인 모두가 한 이웃이라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인의 자기 정체성(identification)에 대한 의식은 온전한 평화의 실현이라는 관심사를 종교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삼게 만든다. 말을 바꾸면, 그것은 인간의 완전한 자기실현에 대한 궁극적 관심을 뜻한다. 그러나 늘 분쟁에 시달리며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주변 환경과 국제 사회를 경험하고 사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서로 화해하고 진정한 세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⁹⁾ 글로벌한 차원에서 평화실현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들이 세상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다.¹⁰⁾

그러나 다양한 인간 집단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면서 서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 종교의식(religious mentality)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을 의식한다면, 오랜 기간 서로가 상대방에 대하여 독선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종교 전통들을 화해시키고 협력의 길로 초대하고자 하는 시도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현대의 종교들은 서로 소외 되고, 적대시 되고, 불신 당하고 있는 인간 각자와 집단에게 과연 화해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교육을 함에 있어서 종교들에게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유용하고 현실적이며 기대할만한 내용이 과연 있는가?

Richard Friedli,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성바오로출판사, 1989. 27-29쪽: “살림” 개념 참조.

8) 이 부분은 다음 저술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전개하였다. Richard Friedli,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9) Samuel Huntington, *Clash of Civilizations*,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이제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문명이다』, 서울: 김영사, 1997 참조.

10) Richard Friedli, 김영경 역,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 - 종교들의 역할」, 『새천년과 평화. 종교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조선포털, 2000년 6월 1일, 7-12쪽 참조.

1. ‘평화 교육’이라는 개념

‘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우리는 특정 인간집단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대처와 심리적인 방식이라고 이해한다. 즉, 개인들을 자기가 속한 사회에 적응시키고[사회화], 사회적인 제도나 기관들에 대하여 주지시키며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며[문화화], 이미 주어진 가치들을 각자의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내면화]이라고 말이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말하면 교육은 또한 특정 사회라는 경계(境界) 내에서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란 “직접적이고 ‘문화에 조건 지어진 대로’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때그때 어떠한 행동거지를 취해야 할지를 알아가게끔 하는 일체의 행위”¹¹⁾를 뜻한다.

교육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평화교육’이란 세계 전체를 범주로 하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 중에 개인적이거나 구조적인 ‘폭력’을 완화하고 마침내 모든 비평화적 폭력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렇게 쪼개진 인간 집단들을 특정한 이념으로 쏠리게 만듦으로써, 일부분이 마치 전부인양 이른바 ‘부분적인 동일시’로 이끌어가는 양태”¹²⁾를 말한다. 평화교육에서는 그러므로 폭력을 줄여나가는 조건을 극대화하고, 포괄적인 연대감과 실질적인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도록 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최소화시키는 방식들을 알려준다. 평화교육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립하면 평화교육을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 구체적 현장에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시도에 응용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¹³⁾

첫째 단계는 ‘평화수업’이라고 불릴 수 있다. 평화 수업이란 일종의 기본 정보에 대한 제공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평화에 관한 통계 자료와 분석 내용을 알려주며, 그에 따라 각자가 태도를 결정하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평화를 지향하려는 다짐을 하게 만들고, 공격적 성향을 줄이고, 먼저 나서서 화해를 요청하는 심리적 자세를 갖추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갈등과 불안감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만든다. 평화수업에서는 또한 폭력을 부추기는 사회구조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생활의 기능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포함된다. 폭력적

11) Richard Friedli, op. cit., pp. 32-33.

12) loc. cit.

13) Ibid., pp. 33ff.

성향, 선입견, 반감, 자기보존 본능, 금기, 독선,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폭력적 장면 등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여기에 해당된다. 평화수업은 이와 같은 현상을 분석하는 개념적인 도구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한 편으로는 폭력의 형태와 원인에 대하여 다루며, 다른 한 편으로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개별 상황에 걸맞은 방법을 제시하는 일과 더불어서 비폭력적인 논의의 전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려주며, 폭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인과 사회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단계는 ‘평화양성’(平和養成)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 양성은 앞의 단계인 평화수업에서 습득한 사실 관계에 대한 지식을 내 것으로 삼아 각자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 여기서는 단지 평화 문제와 관련되는 정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줄이려는 노력에 실질적으로 돌입한다. 평화를 이룩한 사람들의 ‘본보기를 통하여 배우기’¹⁴⁾라는 방식을 통하여 각자의 본능 안에 도사린 폭력적인 공격 성향¹⁵⁾이 줄어들어야 한다. “평화 양성에서는 폭력적 성향과 폭압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굳건하게 만드는 일[Ich-Bildung]이 우선시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생활방식이 효과적이다.”¹⁶⁾

셋째는 본격적인 ‘평화교육’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평화교육의 단계에서는 평화의 양성이라는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만든다. 해당 단계에서는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이끈다. 평화교육의 최종 목표는 갈등과 분쟁에서 빚어지는 폭력을 제대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평화교육의 단계는 여러 층으로 나뉜다. 자기 스스로 교육을 받는 일에서부터 연계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교육도 있을 수 있다. 교육자는, 특히 종교교육자는 평화의 내용과 목표를 항상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행하는 교육의 방법, 교육태도, 수업방식,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인간관계 등 일체가 폭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교육은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한 영역에 국한하여 머무를 수만은 없다. 교육자 내지는 스승이 보여주는 삶의 질적인 면을 포함해야 한다. 스승은 다만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존재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제자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삶의 전반에 걸쳐 갈 길을 열어 보여주는 본보기[role model]가 되어야 한다. 그

14)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개탄의 소리는 바로 이렇게 ‘보고 배울 만한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 없다’는 뜻이라고 새길 수 있다.

15) 프랑스의 문화비평가인 René Girard에 의하면, 인간 본성 깊숙이 폭력적 성향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한 폭력의 합법적인 분출 방식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종교들마다 가지고 있는 희생제의에서 제물의 도살이라고 보고 있다. René Girard, 김진식,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참조.

16) Richard Friedli, op. cit., p. 34.

렇게 해서 그의 인품(human quality)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서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이론적인 지식에 정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도 갖춰야 한다. 여기서 이론적 지식이란 불안감과 주저함을 극복하기 위한 힘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그에 적절한 태도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을 포함한다. 실제적 능력이란 조직 구성, 대중매체를 상대로 하는 홍보, 전략 수립, 분석능력 등을 고루 갖추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과 더불어서 쉽사리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초지일관하는 심지가 굳은 자세가 요구된다.¹⁷⁾

거기에 덧붙여서 오랜 세월 전승되어온 종교들의 극기 수행의 경험이라는 “지혜의 유산”¹⁸⁾ 즉, 명상, 수련, 종교적 심층경험 등이 모아지고 공유된다면 평화실현을 이루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종교학자 와/또는 종교인이 외교, 경제, 교육, 심리학, 군사학 등등 여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루어야 할 협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광범위한 협력이야말로 평화교육을 포괄적인 맥락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세우게 만드는 동력과 자산이 된다.¹⁹⁾

2. 평화교육의 목표

평화교육의 목표란 각자 스스로 자신의 독자성을 획득하고, 각자의 내면에 화해의 의지가 자리 잡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이 심리적 긴장으로부터든지 아니면 사회적 통제로부터든지 간에 아무튼 벗어나기를 갈구한다. 종교가 나서면 이와 같이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의 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가 지닌 역동성이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평화’를 이룩하고 유지하여 완성을 향해 가도록 하는 방안들을 심사숙고해왔다는 데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의의 실현이며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해와 친선을 강화하는 사랑의 결실”²⁰⁾을 뜻한다.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평화의 부재란 단지 ‘궁핍한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라는 고유한 모습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뜻한다. 그러므로 종교적 의미

17) 평화의 실천과 단계적인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조. H. Rothenspieler, “Training gewaltfreier Aktion-Möglichkeiten emanzipatorischer Friedenspädagogik”, in: *Probleme des Friedens* 10, 1975, pp. 3-87.

18) 박일영, 「지혜의 체험과 전승」, 『한국무속학』9, 한국무속학회, 2005, 7-26쪽 참조.

19) 그와 같은 의미에서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등 국제 또는 국내 종교연합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멤버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2015년 현재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의 대표들이 회원으로 가담하고 있다.

20) 박종대, 「평화」, 『우리말 철학사전』제2권, 지식산업사, 2002, 338쪽.

에서 평화를 언급할 때에는 구조적 폭력에 대하여서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폭력의 상황이란 바로 ‘사회적이거나 구조화된 죄악’”²¹⁾이라고 여겨야 한다.

이러한 ‘죄악’은 사회질서의 ‘세속적’ 영역에서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의 도래를 종교 스스로가 고유의 시스템 안에 내재된 폭력의 메커니즘으로 방해한다면, 그럴 때 그 종교는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그러나 이러한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희망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종교가 주는 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공식적인 세계관과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평화라는 목표를 제공한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올곧은 모습을 지녀온 종교들은 평화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데 있어서 모범이 된다. 참다운 종교들은 중단 없는 정신적 자유 덕분에 어떠한 유형의 편견과 외압에도 저항한다. 그러한 종교들은 고통 받는 인간들을 향한 진정성 있고 선의의 연대감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편견과 외압에 언제나 맞서는 것이다. 그와 같은 종교의 사례를 우리는 제도를 절대시하는 기득권자들의 태도에 맞서서 예수가 안식일과 성전을 비판하는 예화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희생제와 카스트 신분제도를 상대화시키는 석가모니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다운 종교들이 지닌 이와 같은 희망에 찬 구조 덕분에 평화교육은 ‘장래세대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간다워지는데 도움’을 주고, 글로벌한 인류 가족 안으로 적응해 들어가는 길을 제공한다.²³⁾ 그러므로 진정성을 지닌 종교들이 제공하는 평화의 길은 내면적이거나 외부적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눈치 보기와 감시의 눈초리로부터 벗어나서 각 개인에게 그리고 크고 작은 규모의 단체에게 자유롭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²⁴⁾ 진정한 용기를 지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미 각자 안에 자리 잡은 공격성향을 조절하며, 인간 내면과 외부의 폭력을 줄이고, 되도록 연대감의 폭을 넓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기 강화, 창의력 계발, 그리고 세계 개방성이라는 범주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²⁵⁾

1) 자기 강화

여기서 제안하는 평화교육의 첫째 범주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겨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구습(舊習)에 얽매이거나 주어진 규정을 의식하면서 행동에 나

21) Cfr. G. Bouthoul, *La Paix, Que sais-je? 1600*, Paris, 1974, p. 101.

22) Johan Galtung,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René Girard, 앞의 책 참조.

23) 강영옥 외, 『사람답게 사는 삶.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청소년 인성교육』; 강영옥 외, 『장래세대 인성교육 연구』; 강영옥 외, 『청소년 인성교육 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감사랑, 2014 참조.

24) 요가와 위파싸나 등 힌두교와 불교의 명상훈련은 이런 점에서 강압적이고 피상적인 자아를 벗어나 자유로운 심층 자아를 발견하고 강화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25) Cfr. J. Esser, *Zur Theorie und Praxis der Friedenspädagogik. Kritische Konzepte für Schule und Erwachsenenbildung*, Wuppertal, 1973, pp. 47-67. 79-110.

서기를 주저하거나 사회적 역할에서 뒤로 물러서기 보다는 차라리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가치 있는 일에 앞장서는 용기 있는 행동의 감행(敢行)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화교육에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는 과거에 연연하는 행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세계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이다.

이렇게 이해된 용기를 지닌 사람이란 “‘자기가 강화된 사람’으로서 내면적으로는 평온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개방적인 사람이 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은 분명함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통하는 적응 능력을 갖추게 되며, 그 결과 ‘타협의 윤리’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²⁶⁾된다.

스스로를 강화하여 용기를 가진다는 교육목표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조화와 통합을 이루도록 남의 도움 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²⁷⁾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려움 없는 연대감을 위한 개인-심리적인 노력은 평화-정치적인 결단의 능력과 타협의 준비 자세를 갖추는 전제조건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행해야 할 평화교육에 속한다. 그러한 교육을 함으로써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간에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무력감이나 좌절감, 그리고 불안감을 다룰 수 있는 심지어는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 수 있게 된다.²⁸⁾

2) 공감대 형성

새로운 태도와 결단의 용기를 지니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영역에서나 사회-정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정하거나 창출해내기 위하여 일종의 상상력(fantasy)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상력 내지 창의력은 위에 말한 용기라는 범주를 구현하기 위한 보완책이 된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이 실망스럽게 반복되는 군비확장과 전쟁에 대한 강요를 폭력과 갈등에 대항하는 비폭력적 해결책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의존성 때문에 야기되는 무력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도 평화교육은 갈등을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자발성과 유연성이라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와 같은 창의력을 일깨우기 위하여서는 고도의 감정이입(empathy) 능력과 포괄적인 감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여러 다양한 종교전통들의 영적인 스승들이 한 편으로는 잘 조절된 성(sexuality)의 역할과 폭력의 감소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성을, 다른 한 편으로는 제 멋대로 고삐 풀린 성과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26) G. Zacharias, *Der Kompromiss. Vermittlung zwischen gegensätzlichen Positionen als Ermöglichung des Friedens*, München, 1974, p. 37.

27) J. Esser, op. cit., 51. Cfr. E. H. Erikson, *Gandhi's Wahrheit. Über die Ursprünge der militanten Gewaltlosigkeit*, Frankfurt am Main, 1971, pp. 314-323.

28) Cfr. H. Rothenspieler, op. cit., passim; D. Senghaas, *Gewalt-Konflikt-Frieden. Essays zur Friedensforschung*, Hamburg, 1974, p. 53.

형태를 지니는 폭력의 상승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놀라운만한 확실성을 가지고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비폭력의 실천가들이 모든 형태의 파괴적인 분노와 갈등상황에 대하여 중재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인간 실존 전체에서 성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될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²⁹⁾

인격 양성의 폭넓은 영역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스승들의 체험이 용기를 북돋워주고 감수성을 훈련시키며, 폭력을 감소하고 비폭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방법을 터득하여 평화교육이 결실을 맺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釋迦牟尼)뿐만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³⁰⁾도 ‘동정심의 무한한 느낌’[maitri 慈와 karuna 悲]이야말로 직접적인 행동을 앞두고 명상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였다.³¹⁾ 자신이 지닌 한계에 대하여 명상하는 철저한 심사숙고 속에서 대안(代案) 선택에 대한 기쁨이 자라나며,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사리고 있는 고무한 자명성(自明性)에 대한 바람직한 의심이 일어나고, 반대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려는 용기 있는 자세가 준비되며, 자신의 선택과 의견에 대하여는 유연하게 상대화할 수 있게 된다.

3) 세계 개방성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 강화를 통하여 용기를 갖는 일과 창의력 계발이라는 평화교육의 두 가지 범주는 방법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범주인 ‘세계 개방성’은 윤리적인 이행을 그 속에 내포한다. 즉,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자세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류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인간이라는 정체성(identity)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기적이고 지엽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주장과 배타적인 ‘진리 보유권 주장’(Wahrheitsanspruch)에 대한 포기와 철회를 뜻한다. 이와 같이 윤리적으로 자리 잡은 평화를 향한 의지는 평화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불거지는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쓸 데 없이 지레 겁을 먹지 않게 만든다. 관대한 세계 개방성과 과단성 있는 의지는 “평화를 배우려는 관심, 소통에 대한 준비자세, 대화의 능력, 지속성, 적응력, 변화와 실험에 대한 기쁨”³²⁾을 일깨운다.

평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공동체의 건설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종교인들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지지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종교들

29) 성(sexuality)과 폭력적 성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조. Erich Fromm, 鈴木大拙, Richard Demartino, 김용정 역, 『선(禪)과 정신분석』, 정음사, 1977, 100-180쪽.

30) Mahatma Gandhi, 함석헌 역, 『간디 자서전』(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파주: 한길사, 2009 참조.

31) 대승불교 전통에서 특히 이와 같은 ‘사랑과 동정의 마음’(慈悲心)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대성이 발전되었다.

32) J. Esser, op. cit., p. 63.

이 내세우고 있는 근본적인 체험에 대한 비교와 접근은 각기 다른 전통과 형식들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평화실현을 위한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심오한 일치가 종교들 사이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개별 종교들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넘여가는 모습은 사회적인 강요와 차별적인 행동방식이 더 이상 궁극의 규범이 아니라는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보여준다.³³⁾

하나의 종교가 시작되는 초창기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종교의 신도들은 기존 질서와 규범에 대하여 거부하곤 하였다. 신앙³⁴⁾에 대한 결단 혹은 새로운 종교단체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은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러한 희망을 지니는 단체에게서 포착되는 사회적인 균열(龜裂)이며 ‘집에 머무는 상태에서 집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결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종교성은 원래 자기가 안정적으로 속해 있던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기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세상의 고달픈 실상이라는 ‘황야 속으로’ 속절없이 내던져진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세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성급하게 서두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세계에 구원과 평화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예수(Jesus the Christ)와 부처인 고타마(Gautama the Buddha)로 하여금 고독함 속에서 찬찬히 시도를 한 연후에 본래의 세상으로 돌아가 그곳에 근원적인 치유(healing)를 제공하도록 만든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는 매우 강력한 치유방식으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 있다는 자체가 사람들을 생생(生生)³⁵⁾하게 만드는 사랑과 마음 깊숙이 박힌 희망으로 각인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교성의 체험은 그렇지 않았다면 특정 사회에서 번두리로 밀려났을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를 체득하게 만든다. 평화를 향한 의지는 인간의 궁핍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며 폭력의 구조를 깨부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만든

33) 이러한 맥락에서 김수환추기경이 유교와 천주교가 100년 전 이 땅에서 벌인 갈등은 서로에 대한 오해 내지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양 종교는 사실 효도라는 가치를 공통으로 내세우는 종교들로써 다만 그 방향에 있어서 유교는 상향식, 천주교는 하향식이라는 통찰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김수환, 「유교와 천주교의 만남. 십산상 수상 강연」,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 편, 『김수환추기경말씀집. 2000년』, 가톨릭출판사, 2001, 223쪽 참조. 이러한 그의 사상은 KBS1-TV에서 2001년 4월 27일 방영한 <도를 논어강좌>에 특별출연하여 행한 <공자의 인간관과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이라는 주제 강연에서도 잘 드러난다.

34) ‘신앙’이라는 개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는 종교학적으로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요가를 신앙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나 치유방식, 또는 종교적 명상의 기술이라고 할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지는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Mircea Eliade, 정위교 역, 『요가. 불멸성과 자유』, 고려원, 1990 참조.

35) 이런 맥락에서 유교가 말하는 “生生之心”의 깊은 의미를 알아듣게 만든다. 앞의 ‘生’ 자는 동사로서 ‘살린다’는 의미이고, 뒤의 ‘生’ 자는 명사로서 ‘생명’을 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생이란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되겠다. 김수환, 「유교와 천주교의 만남. 십산상 수상 강연」, 앞의 책(2001), 224쪽 참조.

다. 그렇게 해서 행동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는 인간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장애로부터 거리를 두는 인식이 생겨나며, 장애물을 결정적으로 누그러뜨리는데 소용이 되는 움직임 시작할 수 있다. 평화에 대한 교육이야말로 이러한 움직임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된 종교들은 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참된 종교들은 그 반대로 ‘권력과 폭력’의 미몽에서부터 사람들을 깨어나게 만든다.³⁶⁾

종교의 역사로부터 평화교육적인 관심사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내하는 일은 부분적으로는 역사적 사실(fact)이고, 부분적으로는 이상적인 구상(project)에 해당된다. 인류 역사상 참된 종교들은 자기 강화를 통해 얻어지는 용기를 가지도록 사람들을 복돋워 왔으며, 창의력을 키우도록 만들고, 글로벌한 평화에 대한 의지를 지니도록 세계 개방성에 공헌한 바 있다. 그러나 종교들은 종종 또 이러한 해방적인 삶의 방식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종교 공동체들은 그들의 율법과 위계질서의 구조를 동원해 가지고 비겁한 순응과 길들이기, 인간의 노예화, 비관용에 관여한 일이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종교공동체의 형태가 ‘교단’ 유형의 대형 종교단체가 되었든지, ‘교파’(sect) 유형의 소규모 모임이 되었든지 막론하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과연 평화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공헌할 수 있을지 아닌지 논란이 벌어지고 의문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Ⅲ. 평화교육을 위한 가톨릭 종교교육의 사례 -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 사상을 중심으로

위에서 논구한 대로,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한 종교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평화교육이라는 개념과 목표로 나누어 논하였다. 평화교육의 목표는 자기강화, 공감대 형성 그리고 세계개방성이라는 세목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평화교육을 위한 종교의 과제를 한국의 가톨릭이라는 맥락에서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김수환추기경연구소가 2011년부터 시행중인 교육활동 중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1922-2009)의 평화 이해와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³⁷⁾ 즉,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간 구체적 인물인 김 추기경의 삶과 행동 속에서 실제적

36)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피로 얼룩진 살상이 대부분 종교를 명분으로 하거나 빙자하고 있음을 쉽게 목도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는 그래서 교리의 정교한 구조나 교세의 막강한 위세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Peter Berger,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81 참조.

37) 오지섭, 「평화」, 강영옥 외, 『김수환 추기경 시민 아카데미 매뉴얼 및 교재 개발연구』, 감사랑, 2015, 119-137쪽 참조.

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평화의 개념과 ‘평화 감행’(平和敢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추기경이 제시했던 평화의 의미와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그 윤곽이나마 제시하리라 기대하게 된다.

1.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 개념

주지하다시피, 김수환 추기경은 종교나 사회사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을 담은 전문적 학술 저서를 남기지는 않았다. 다만 김 추기경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준 언행을 통해 그의 사상과 실천덕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³⁸⁾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김수환 추기경의 ‘사회영성’(social spirituality)이 지니는 특징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 추기경은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이론가라기보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는 모범을 보여준 실천가였다고 할 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보여준 모든 관심과 행동은 현실 삶의 절박한 상황 안에서 벌어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찰을 토대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심고원려의 내용을 자신부터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김 추기경이 보여주었던 용기 있고 진솔한 모습에서 이러한 사회영성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확인할 수 있다.

‘평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김수환 추기경의 실천적 사회영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 추기경의 평화 이해는 막연한 이론 탐색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현실 안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진 실제 삶의 모색이요,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평화실현이란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기보다, 실천적 삶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평화는 본질적으로 ‘인간성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구조적 폭력’이라는 사회적 불공정과 억압이 없는 상태까지를 포함한다. 비폭력적 분쟁 해결을 선호하고, 정치-경제적 정의와 사회-환경적 균형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참다운 평화는 가치를 앞세우며,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지닌다.³⁹⁾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원칙은 이데올로기, 군사, 경제 등의 문제를 떠나 인간에 대한 애정에

38) 김수환추기경전집편찬위원회 편, 『김수환추기경전집』, 가톨릭출판사, 2001 참조. 『김수환추기경전집』은 총 1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집 출간을 기획한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소장 신치규)는 1965년부터 2000년까지의 일기, 메모, 강론, 강연, 기고, 인터뷰, 축사 등 각종 원고 총 3,481편 가운데 2,078편을 선정하여 출판하고, 2001년 6월 27일 김추기경의 팔순을 기념하여 봉정했다. 그 이후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비서실에서는 1965년부터 2008년까지 수집된 김수환 추기경의 모든 원고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김수환추기경말씀집』을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총 33권의 한정판으로 간행하여 관련 기관에 비치하였다. [이하 『말씀집』으로 표기].

39) 김명희, 앞의 글, 2011 참조.

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화해하는 마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통일은 북한의 영토와 남한의 영토를 어떻게 합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의 문제는 갈라져 사는 동포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문제, 즉 평화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경제의 논리처럼 주는 것이 있어야 내놓을 수 있다는 식의 이윤 논리나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논쟁, 그리고 확전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군사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에 중심을 둔 평화의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⁴⁰⁾

하느님이 가장 관심 있고 사랑하시는 인간이 하느님 창조의 뜻대로 존엄성을 간직하며 참된 삶, 행복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곧 참된 평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 개념은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에 해당한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러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참된 평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진리에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으로써 이룩되는 평화입니다... 진리, 정의, 사랑이야말로 평화의 참 무기입니다...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미소 하나로써 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사랑에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그 메마른 마음을 적서 줄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이 많습니다. 옷이 없어서라기보다 아무도 그들을 사랑과 이해로써 감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옥에 갇힌 사람처럼 고독하고, 중병을 앓는 사람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한 것이 될 것입니다(마태 25, 40). 우리 하나 하나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참 평화는 증진될 것입니다.”⁴¹⁾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 이해를 앞서 살펴본 현대 평화 이론에 견주어보면 ‘적극적 평화’ 개념 내지는 완전한 평화에 해당한다.⁴²⁾ 김 추기경 스스로도 교회의 공식문헌을 인용하면서, 소극적 평화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정의의 실현으로써 이룩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소개하며 그 실천 방안을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통하여 제시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체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인간 사회에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더욱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정의란 존엄한 인격체로서

40)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1999. 4. 20)」, 『말씀집. 1999년』, 59쪽.

41) 「평화의 참무기(1976. 1. 1)」, 『말씀집. 1975-76년』, 239-240쪽.

42) 정천구, 앞의 글 참조.

인간 서로가 올바른 관계에 서서 의롭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곧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폭력, 억압, 공포, 위협에 의해 강요된 질서, 강자가 약자를, 물질적인 부(富)를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질서는 거짓된 질서이며,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평정’(平靜)이라는 말은 흔히 압제를 의미합니다. 거짓된 질서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두 자를 보아도 벼[禾]가, (곧) 밭이 모든 입[口]에 골고루[平] 들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⁴³⁾

2.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감행

이런 맥락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실천한 평화감행의 여정은 특정 종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 추기경이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 보여준 평화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참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분한다. 김수환 추기경에 따르면, 물리적 힘으로 얻고 지키려는 평화는 참된 평화일 수 없다고 한다.

1) 김수환 추기경의 자기강화

대통령을 위한 연례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물리적 강압에 의한 안녕과 질서’가 아닌 참 평화에 대한 추기경의 소신은 서슴없이 표출되고 있다. 2014년 여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한 연설에서 “고통 앞에 중립은 없으며,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힘주어 말한 대목과 오버랩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평화는 오늘날 모든 이의 소망입니다. 하오나 세상은 아직도 힘의 평화, 즉, 무력과 경제력 등 힘의 균형과 질서 유지를 평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주는 외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써 세상에 평화를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그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불목의 죄악과 전쟁의 화를 우리 안에서 없애 주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자녀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서로 형제됨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평화를 원하면 먼저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⁴⁴⁾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 국회에서 행한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한 연설에 대하여도 준열한 비판을 그치지 않는다.

“지난번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정치에서는 그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3) 「평화예의 갈망(1988. 11. 25)」, 『말씀집. 1988년』, 523-524쪽.

44)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1972. 5. 1)」, 『말씀집. 1971-74년』, 180쪽.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더 큰 재난으로 우리를 파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특히 그 힘이 핵무기를 비롯한 고도의 화학무기를 뜻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도 없고 사회도 조용하다고 해서 그것을 곧 평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독재정권 아래서는 국민은 무섭고 떨어져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회질서가 잘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극단의 비유일지 모르나 그런 것은 무덤의 평화와 질적으로 다를 바 없습니다.”⁴⁵⁾

평화는 인간존엄성과 인간권리의 존중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토대로 한다. 그렇다면 김수환 추기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인간다움이 제대로 실현된 모습이다.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 없이 평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힘에 의한 안정은 평화가 아닙니다. 한 국가사회 안에서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위정자와 국민 간에 있고, 국민 상호간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서 뿌리째 뽑아 보십시오. 무엇이 남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야심, 탐욕 등 남는 것은 모두 죄악뿐입니다. 혼은 타락하고 마음은 메마르고 황폐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발붙일 곳 없는 황무지 사막입니다.”⁴⁶⁾

2) 김수환 추기경의 공감대 형성

마찬가지 맥락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평화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인간 존중과 인간 사랑의 실천도 강조한다.

“참 평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와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인간존엄성과 인간권리를 존중하고, 또한 사회정의를 토대로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모두 우리 이웃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민족·국가 등의 차별을 떠나서 형제로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그 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인간의 참된 삶, 번영과 행복·구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당신을 비우시고 바치셨습니다. 하느님의 제일의 관심사는 인간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인간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과 같이 신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⁴⁷⁾

그렇다고 김수환 추기경이 제시하는 평화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내세적인 데 만족하고 머무르는 평화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현해야 하는 현실적 평화, 일상생활 속의 평화이다.

45)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1989. 3. 6)」, 『말씀집. 1989년』, 68쪽.

46) 「국가의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1973. 3. 24)」, 『말씀집. 1971-74년』, 306-307쪽.

47) 「사랑과 평화(1986. 1. 1)」, 『말씀집. 1986년』, 2쪽.

“남한 내의 휴대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해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의사소통욕구가 그만큼 큰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남한과 북한사회의 의사소통은 초기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부작용도 심각할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의 욕구를 건강하게 유도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희망해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사소통에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가 깃들여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준비하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철학과 생활을 내면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 동포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시키고 이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⁴⁸⁾

3) 김수환 추기경의 세계개방성

김수환 추기경은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교황 요한-바울로 2세의 말을 빌어서 힘주어 강조하기도 한다.

“교황 요한-바울로 2세께서는 오늘 제16차 평화의 날 메시지를 발표하시면서 오늘의 사회와 세계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이 평화를 위해서는 참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라 안의 여러 계층 사이에, 지도자와 국민, 노동자와 사용자 등 여러 계층 간에 진리와 정의에 입각하여 함께 공동선을 찾는 자세로 대화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쟁과 전쟁의 위험,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불안은 이런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는 평화의 필수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그 자체, 상대방을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⁴⁹⁾

이런 맥락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던 여러 정치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미 보아 온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함을 잘 압니다. 광주사태 해결, 5공 비리 청산, 삼청교육대 문제 등,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민족과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 서로 적대관계에 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문제는 지역감정입니다. 특히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은 골이 깊습니다. 다음은 노사간 계층간 도농(都農)간 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의 격차입니다. 또한 세대 간의 격차,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 결핍도 심각합니다. 뿐더러 남존여비의 사상도 아직 불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 경시의 관념과 폐습은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와 인신매매 등의 심각한 죄악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 나환자 결핵환자 고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땅의 평화는 첫째, 우리 모두의 인간다움을 위하여, 둘째, 국민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셋째,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국방도, 종교도 이를 위해 있어

48)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1999. 4. 20)」, 『말씀집. 1999년』, 61쪽.

49) 「대화는 평화의 필수조건(1983. 1. 1)」, 『말씀집. 1983년』, 16쪽.

야 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아 생각하고 활동해야 합니다.”⁵⁰⁾

김수환 추기경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라도 하듯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현’을 힘주어 강조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신 것은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고 자신의 원수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불의에 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일체 쓰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불의와 폭력의 희생이 되면서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본을 받아 아씨의 프란치스코가 그러했고, 사를르 드 푸코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디도 그런 분이었고, 우리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분이었으며,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러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투투 대주교도 그런 비폭력 평화 투쟁가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떤 거짓된 술책이나 폭력을 수반한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⁵¹⁾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 이해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가르침과 그에 대한 자신의 깊이 있는 성찰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이 제시하는 평화를 ‘하느님의 평화’ 혹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표현했으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의 본보기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제시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김수환 추기경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는 평화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사회 전반에 걸쳐 유효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IV. 결론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위한 종교의 교육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 평화교육이라는 개념과 평화교육의 목표로 나누어 논하였다. 평화교육을 위한 목표에서는 자기강화, 공감대 형성 그리고 세계개방성이라는 덕목의 실천방안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평화교육을 위한 이와 같은 종교의 과제를 한국의 가톨릭이라는 맥락에서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접근하였다. 즉, 우리 시대 영성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 이해와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체적 인물인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행동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평화의 개념과 ‘평화 감행’(平和敢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추기경이 제시한 평화의 개념과 평화 실현을 위한 발자취를 통하여 평화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비전을 그 윤곽이나마

50)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1989. 3. 6)」, 『말씀집. 1989년』, 76-77쪽.

51) 위의 글, 77-78쪽.

제시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이 참 평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강조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사회정의’, ‘생명의 소중함’, ‘자기희생’, ‘나눔과 배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현’, ‘생활 속의 평화’ 등의 주요 원리는 단지 특정 종교의 교리나, 일부 정치 진영의 소위 진영논리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집단의 노선과 울타리를 넘어서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현대 평화교육의 이론과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사상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 역시 이러한 포괄적인 평화의 실현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 이해와 그 실천과정을 천착함으로써 오늘날 세계가 처한 시급하고 심각한 과제로서 평화 실현을 위한 보편적 관심과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를 드리우고 있는 문명 간 충돌이나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대학살, 인종 청소, 테러 등 비극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들도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종교의 이름이다. 뒤집어 말하면, 21세기에도 종교는 여전히 인류의 정신적 기조를 이룰 뿐 아니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삶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고 여겨진다. 달리 말하면, 세계문화의 평화적 진전에 종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적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순한 의도로 왜곡되고 악용되는 종교가 아니라, 본연성(本然性)을 갖춘 종교 간의 만남과 그에 따르는 종교 간의 대화와 조화 그리고 협력이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같은 평화교육의 이론에 대한 정리와 실천적 사례에 대한 분석은 종교 현장의 사회적 실천 및 영성훈련을 통한 평화교육에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효용성 높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참고문헌

-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판: 2002.
-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 편, 『김수환 추기경 말씀집』, 가톨릭출판사, 2008.
- 갈통, 요한(Galtung, Johan),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 강영옥 외, 『사람답게 사는 삶,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청소년 인성교육』, 감사랑, 2014.
- _____, 『장래세대 인성교육 연구』, 감사랑, 2014.
- _____, 『청소년 인성교육 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감사랑, 2014.
- _____, 『김수환 아카데미 매뉴얼 및 교재 개발연구』, 감사랑, 2015[근간].
- 교황 요한 23세, 정규만 역,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3.
- 김수환추기경전집편찬위원회 편, 『김수환 추기경 전집』, 가톨릭출판사, 2001.
- 디어, 존(Dear, John), 『헨리 나웬, 평화에 이르는 길』, 성바오로출판사, 2004.
- 박일영, 「새 천년, 새 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가톨릭문화」, 『21세기 한국사회의 종교문화,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자료집』, 서울: 조선포럼, 1999년 1월 21일.
- _____, 「지혜의 체험과 전승」, 『한국무속학』9, 한국무속학회, 2005.
- _____,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 가톨릭출판사, 2008.
- 박종대, 「평화」, 『우리말철학사전』, 제2권, 지식산업사, 2002.
- 버거, 피터(Berger, Peter L.), 김쾌상 역, 『현대사회와 신』, 대한기독교서회, 1979.
- _____,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81.
- 엘리아데, M.(Eliade, Mircea), 정위교 역, 『요가, 불멸성과 자유』, 고려원, 1990.
- 이찬수·유정원, 『종교신학의 이해』, 신학총서 32, 분도출판사, 1996.
- 지라르, 르네(Girard, René),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 쿵, 한스(Küng, Hans),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새로운 비전』, 종교 간의 대화 30주년 기념 대화모임 자료집, 아카데미 하우스, 1995.
- 프롬, 에리히(Fromm, Erich),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데마르티노, 리차드(Demartino, Richard), 김용정 역, 『선과 정신분석』, 정음사, 1977.
- 프리들리, 리카르트(Friedli, Richard),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성바오로출판사, 1989.
- _____, 김영경 역,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 - 종교들의 역할」, 『새천년과 평화, 종교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포럼 자료집』, 서울: 조선포럼, 2000년 6월 1일.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명충돌 위기와 종교, 2001 하반기 이웃종교 이해강좌 자료집』, 서울: 종로성당, 2001년 12월 4일.
- 헌팅턴, 새뮤얼(Huntington, Samuel),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이제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문명이다』, 서울: 김영사, 1997.
- Bouthoul, G., *La Paix, Que sais-je? 1600*, Paris, 1974.
- Erikson, E. H., *Gandhi's Wahrheit, Über die Ursprünge der militanten Gewaltlosigkeit*,

- Frankfurt am Main, 1971.
- Esser, J., *Zur Theorie und Praxis der Friedenspädagogik, Kritische Konzepte für Schule und Erwachsenenbildung*, Wuppertal, 1973.
- Friedli, Richard,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 _____, “Zivilisierung von Gewalt? Fanatische Strukturen und buddhistische Affektkontrolle”, in: Lähnemann, Johannes, Hg., *Interreligiöse Erziehung* 2000, Hamburg, 1998, pp. 149-157.
- Galtung, Johan, *Strukturelle Gewalt, Beiträge zu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rororo aktuell 1877*, Reinbek bei Hamburg, 1975.
- McGeveeran, William A.,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New York: World Almanac Book, 2005.
- Rothenspieler, H., “Training gewaltfreier Aktion-Möglichkeiten emanzipatorischer Friedenspädagogik”, in: *Probleme des Friedens* 10, 1975.
- Russell, Elbert W., “Christentum und Militarismus”, in: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3, hg. v. W. Huber/ G. Liedke, Stuttgart/ München, 1974.
- Smith, Wilfred Cantwell, *Towards a World 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 Swidler, Leonard ed., *Toward a Universal Theology of Relig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7.
- Zacharias, G., *Der Kompromiss, Vermittlung zwischen gegensätzlichen Positionen als Ermöglichung des Friedens*, München, 1974.

원고접수일: 2015년 6월 8일 심사일: 2015년 6월 28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10일

연구자소개: 박일영

- ① 전공: 비교종교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 ② 관심영역: 샤머니즘, 종교간 대화, 사회영성, 인성교육, 평화교육
 - ③ 주요논저: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사람답게 사는 삶-청소년 인성교육』
 - ④ E-mail: onezero@catholic.ac.kr
-

Abstract

The Task of Religion for Peace Education: Focusing on New Vision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Park, Il-you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e are in the age of not only multi-culture but also multi-religions. It is a profound and serious task searching the possi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peace by religions and digging out the function of peace education in an extremely complicated streamling of the time. We cannot put the request off anymore that the educational role of religions for realization of genuine and active peace must be found in a world drawn in the vortex of change. In such a contemporary religious context, we try to aim at the educational role of religions for the realization of peace.

Christian tradition has telling about ideal divine peace, i.e. perfect and active peace called “shalom.” We take aim at the possibility of religious education focused on the genuine peace as a new vision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As a concrete case study is dealt with the peace education at the Stephen Cardinal Kim Institute since 2011, composed along daring practice by Stephen Cardinal Kim Sou-Hwan(1922-2009).

Key words: Peace Education, Dare of Peace, New Vision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Shalom, Active Peace, Stephen Cardinal Kim Sou-Hwan, Stephen Cardinal Kim Institute